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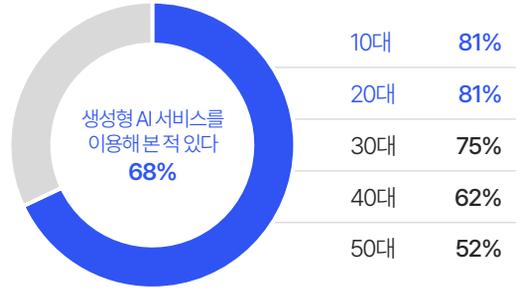
생성형 AI 광고 소비자 인식 조사

최근 광고 업계에서도 생성형 AI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AI는 제작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주는 것은 물론, 크리에이티브 요소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며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냅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점점 더 정교하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이를 이용한 광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생성형 AI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봅니다.

1. 생성형 AI 서비스 & 광고

Q.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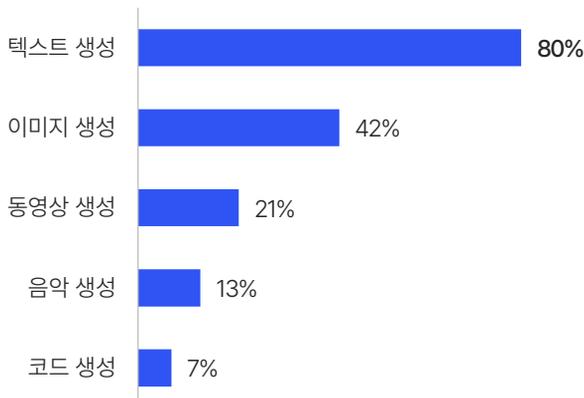
Q. 이용 경험이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중복 응답)

1위. 챗GPT



Q. 생성형 AI로 제작한 결과물의 유형 (1+2+3순위 응답)

1위. 텍스트 생성



Q.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1+2+3순위 응답)

1위. 자료 및 데이터 요약/정리

1위	자료, 데이터 등을 요약/정리	56%
2위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힘든 정보 검색	42%
3위	특별한 목적은 없지만 호기심에 사용	38%
4위	콘텐츠(글·이미지·동영상·음악 등) 제작	22%
5위	외국어 학습/번역	16%
5위	일상적인 대화	16%

Q. 생성형 AI의 이용 빈도 (1+2+3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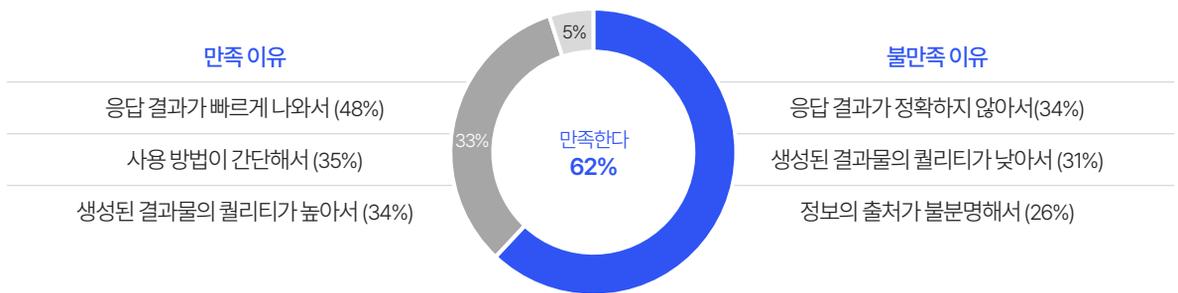
일주일에 2~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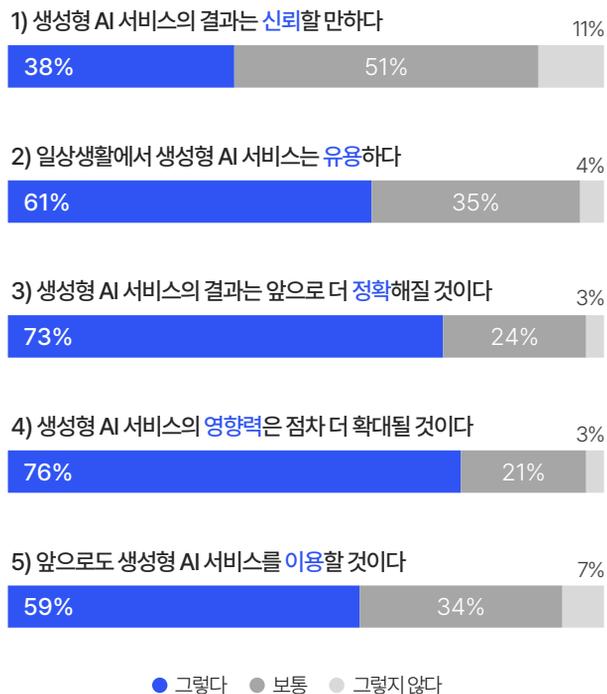
Q. 생성형 AI 서비스 만족도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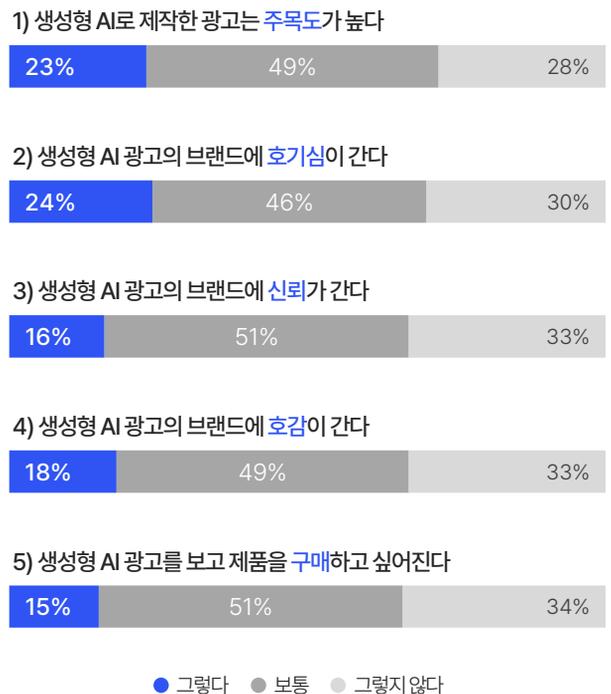
● 만족 ● 보통 ●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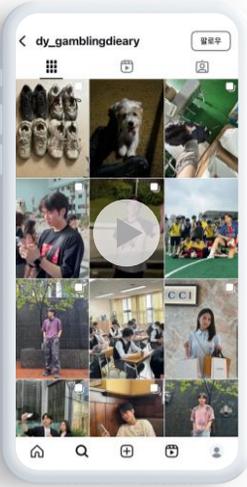
Q.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



Q.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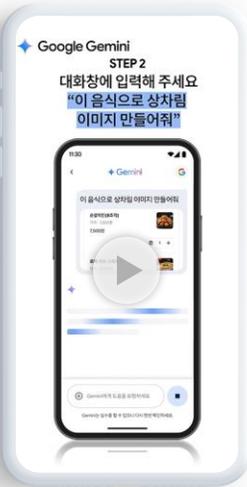
CASE 1. 토스 <박도영의 도박일기>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로 몰입도를 높이고 캠페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사례

- 금융 앱 토스는 경찰청과 함께 한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에 AI를 활용
- AI를 이용해 가상의 인물 '박도영'을 만든 후 이를 숨긴 채 실제 고등학생의 일상 계정인 것처럼 38일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업로드, 평범한 10대 청소년의 일상이 도박을 접하고 무너져 가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전달
- 실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교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이들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가상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현실감을 극대화
- 실제 인물인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가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진 AI 휴먼임을 밝혀 평범한 청소년이라도 누구나 온라인 도박에 중독될 수 있으며 주의 깊게 관심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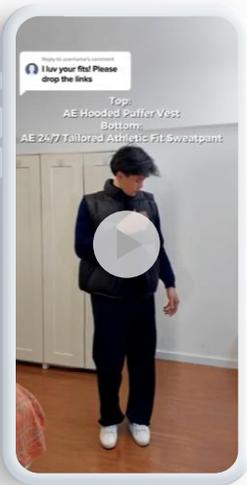
CASE 2. 배달의민족X구글 <제미나이 홈파티 챌린지>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 사례

- 홈파티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구글의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벤트 진행
- 참여자는 배민 앱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고 화면을 캡처한 뒤 제미나이에서 캡처 화면과 함께 프롬프트를 입력해 해당 음식들로 상차림 이미지를 생성, 이를 SNS에 업로드해 참여하는 방식
- 연말연시 이벤트로 홈파티라는 연관성 높은 주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
-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게 하고 참여를 유도
- 배달 주문이 잦은 연말연시, 배달의민족 이용률을 증대하는 동시에 구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효과적으로 각인

CASE 3. 아메리칸이글 <틱톡 Symphony 활용 사례>



AI 아바타를 이용해 의류 제품의 착용 이미지를 보여준 사례

- 틱톡의 AI 아바타 제작 도구인 'Symphony'의 'Showcase Products'는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아바타를 선택하면 AI 아바타가 해당 제품을 들고 있거나, 착용해 보거나, 모바일 기기 화면을 보여주며 소개하는 AI 영상을 생성해 주는 기능
- 미국의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이글은 틱톡 Symphony의 'Showcase Products' 기능을 이용하여 가상의 AI 아바타가 자사의 제품을 입어보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
- 제품의 실제 착용 이미지가 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패션 업종에서, 별도의 크리에이터나 모델 섭외 없이 AI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착용 영상을 제작하고 효율적으로 홍보
- 이를 통해 8천 건 이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기존 캠페인 대비 60% 높은 트래픽 ROAS 달성